





건강과 안전이 뒷받침될 때 더욱 선명해지는 꿈의 그림

충남테크노파크 |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 기시윤 사진 김재이

충남테크노파크는 성장하는 기업들의 요람이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이곳에서의 시간과 정성을 쏟을수록 저마다의 꿈은 선명해진다. 충남테크노파크 산업안전관리실은 자신들이 방심하는 순간, 충남테크노파크에 담긴 꿈과 희망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사명감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낸다.



노동자 보건관리에도 진심인 산업안전관리실

테크노파크란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이 집적화된 산업기술단지, 지역기반산업 육성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1998년 제정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설립 근거로 하며, 현재 총 17개 시도에 19개의 테크노파크가 분포돼 있다.

그중 충남은 1997년 지정된 6개 지역(경북·광주·대구·충도·경기·충남) 시범 테크노파크 사업자 중 하나로 1999년 1월 개소 후, 한국형 테크노파크의 발전상을 제시하며 성장을 이뤄왔다. ICT 융합, 디스플레이, 수소 및 이차전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며 충남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것인데, 현재 천안 밸리를 본원으로 당진·아산·예산·홍성·논산에 분야별 센터들이 모여



있어 규모 면에서도 역사만큼의 위용을 자랑한다. “천안 벨리에만 140여 개의 중소 및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어요. 테크노파크의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테크노파크 내 첨단 장비를 활용해 연구·개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대다수 노동자는 입주기업과 관련한 행정 업무부터 장비 사용 교육 및 관리까지 일당백 역할을 하고 있죠.” 산업안전관리실 윤수용 실장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충남테크노파크 지부장이기도 하다. 평소 노동자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여러 일을 처리하며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관리위탁 서비스는 안전뿐 아니라, 노동자 보건관리를 향한 윤수용 실장의 진심이기도 하다.

노동자 참여형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중요성

대한산업보건협회 소속 의사와 간호사는 매달 충남테크노파크에 방문해 노동자 맞춤형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산업위생사는 사업장의 보건 및 위생 사항을 점검해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관리위탁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아요. 상담 후 살을 많이 빼신 분도 있고, 앞으로 보건관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는 분도 많습디다.” 윤수용 실장은 노동자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꼼꼼히 업무를 처리하는 협회가 믿음직스럽다고 한다. 그 신뢰는 올해 5월 위험성평가 컨설팅으로도 이어졌다. “장비가 구축된 공간이 많지만, 각 장비에 대해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세히 몰랐는데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장비별 사고 발생 유형을 세밀히 설명해 주어 유익했습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마다 ‘표준안전작업절차서’를 부착할 것과 입주기업 신규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을 시행할 것도 권고됐죠.”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계기로 산업안전관리실은 충남테크노파크 천안 벨리 내 400여 대에 달하는 장비를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형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매우 다양한 부문에서 연구 및 제품 개발이 이곳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장비 또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 없이 전담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구조죠.”

현재 산업안전관리실은 센터마다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센터별 이슈를 취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테크노파크의 미래를 책임질 안전보건관리 체계

충남테크노파크 산업안전관리실은 올해 6월 신설된 조직이다. 기업전담반에서 수행했던 안전부문 업무가 산업안전관리실로 확대·개편된 것인데, 소방·전기·건축 부문 담당 총 5명의 구성원이 시설물 보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건물 노후화도 꽤 진행돼 손봐야 할 것들이 많아요. 최근 BMS(Battery Management System)관 외벽에 이상징후가 감지돼 바로 복원 작업이 진행됐죠. 그밖에 여름철 누수, 겨울철 동파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5명이 총 12개 부서를 담당해야 하기에 산업안전관리실의 하루는 숨 가쁠 수밖에 없다. 또한 전담 조직으로 개편되면서 충남테크노파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임무가 됐으며,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들도 산재해 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의 준공이 올해 10월 말 완료될 예정이에요. 이곳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및 연구가 진행될 텐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컨설팅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산업안전관리실. 충남테크노파크의 탄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컨설팅의 경험을 십분 발휘할 것이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은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열린 소통으로 참여를 이끌겠다는 다짐이다. 🗣️

Mini Interview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실 윤수용 실장



Q. 충남테크노파크 산업안전관리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올해 6월 신설된 조직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시설물 보수 및 관리가 있으며, 전담 조직으로 개편되면서 전사적 안전보건 컨트롤 타워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초석을 다지는 단계로,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안전보건 부문 다짐과 포부를 들려주세요.

올해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전 센터에 확대 적용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입니다. 안전문화가 자리 잡히면 보건 부문에도 저희의 역량을 집중시켜 노동자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